

제주 해녀와 오토바이

- 제주 해녀들의 물질과 사회적 지위 -

* 민 윤 숙

* 안동대학교 박사과정

1. 머리말
2. 1980년대 중반 어느 해녀와 '88오토바이'
3. 1995년과 소라값 그리고 '해녀인구'
4. 해녀의 경제력 혹은 경제권과 '네발오토바이'
5. 오토바이와 여자어촌계장의 등장
6. 맺음말

[국문요약]

근래 제주 해안가 마을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로 출근하는 해녀들과 해녀탈의장 주변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연양식장에서 소라허채를 할 때는 백여 대 가량의 오토바이가 주차되기도 한다. 소위 오토바이는 해녀들이 어느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표시하며, 그가 소유한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준다. 이 연구는 제주 해녀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에 오토바이를 적극 수용하게 된 동기와 그것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양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대상마을은 현재 110여 명이 상시적으로 물질을 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신양리이다.

반농반어의 생업 구조 속에서 발일과 물질을 모두 담당했던 고성·신양리 해녀들이 마을바다로 걸어가는 데는 40여 분에서 한 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1980대 중반에는 한 두 해녀가 개인의 운송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탔으나 그후 오토바이의 기동성과 편리함으로 몇몇 젊은 상군 해녀들이 타기 시작했다. 그러다 대부분의 마을 해녀들이 오토바이에 도전하게 된 때는 1995년 무렵이었는데 이 때 일본으로 수출하던 소라값이 급등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토바이는 해녀들의 이동 및 운송수단으로서 해녀사회에서 신속하게 확산되는데 그것은 오토바이가 기동성·편리함, 그리고 독립성 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경운기로 태워다 주는 남편이나 벗해가는 동료들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의 일을 더욱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주체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주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수용하던 1995년에서 2000년 무렵에는 1969년 이후로 줄곧 크게 감소해오던 제주 해녀들의 수가 확연히 지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오토바이의 편리함 때문인지 최근 3, 4년간에도 60, 70대 해녀들의 원동기 면허 소지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전략적으로 도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도입은 그들의 물질 작업뿐만 아니라 발일·계모임·장보기·병원가기 등 일상적 삶을 효율적으로 영위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해녀들이 사회 활동에 더욱 참여토록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여 년간 성산읍·표선읍·구좌읍 일대에 등장하게 된 십여 명이 넘는 해녀어촌계장 혹은 여성어촌계장은 해녀들의 향상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 오토바이가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들의 사회적 활동의 반경을 넓히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 해녀들의 오토바이의 적극 도입은 그들의 노동 행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일상적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1. 머리말

근래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바닷가 풍경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는 해안도로변이나 혹은 해녀탈의장 주위에 즐비하게 서 있는 오토바이다. 오토바이가 바닷가 ‘해녀의 집’이나 해녀탈의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은 멀리서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되고 있다.¹⁾ 서귀포 칠십리 축제에서 만난 안덕면 사계리 어촌계 감사이자 해녀배를 운행하는 변창남씨는 사계리 해녀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해녀가 10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²⁾ 물론 성산읍 성산리처럼 마을바다가 지척에 있는 경우는 예외다.³⁾

필자가 처음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은 ‘그들의 오토바이’가 주는 신선함 때문이었다. 오토바이가 주는 혼한 이미지는 아마 남성성과 폭력성이 아닌가 한다. 남성미를 한껏 과시하는 남성들이나 폭주족이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 혹은 언젠가부터 도시에 새롭게 등장한 ‘퀵 서비스맨’처럼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가로지르는 오토바이가 주는 이미지는 자못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반면 도시나 소도시, 또는 농촌의 시골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다방 아가씨’의 커피 배달이나 차장면 배달의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의 모습은 ‘탈것의 주체’와 ‘탈것’이 분리된, 철저히 도구화된 이미지로만 비친다.

- 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신양리의 경우 지난 9월 15일 자연양식장에서 소라 허채를 할 때는 백여 대 가량의 오토바이가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다. 또 10월 6일 구좌읍 행원리 자연양식장에서 소라 허채를 했을 때도 탈의장 주위에 가득 찬 오토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고성·신양 앞바다에 갈 때 동네 어른들이 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멀리서 해안가 도로를 보며 ‘오늘 오토바이 이시난 해녀들 물에 들어감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 2) 2010.10.23 서귀포 칠십리 축제장에서 안덕면 사계리 감사 변창남씨 면담. 그는 “지금 안덕에서는 해녀들이 다 오토바이 타지. 자전거 타고 차 타고. 오토바이는 오래됐지. 한 10년 됐어.”라고 하며 제주 해녀들에게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이야기했다.
- 3) 성산리 어촌계장이자 해녀인 고승환(65세)에 의하면 이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해녀는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성산항만에 있는 공동어장에 갈 때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마을에서 항만까지는 죽히 삼십분은 소요된다. 전화인터뷰 2010.11.13.

그런데 해녀들의 오토바이는 ‘해녀’와 ‘오토바이’라는 낯선 혹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대상을 ‘하나의 몸’처럼 결합시킨 듯 보였다. 해녀들이 대부분 고령이며 전통적 어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면에 오토바이는 근대 발명품 중의 하나로 남성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둘의 결합은 언뜻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물질을 하러 바다에 가거나 밭일을 하러 갈 때 오토바이를 타는 그들의 모습은 근대를 상징하는 발명품을 자기네식의 삶속으로 끌어들이어 자신들의 오래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데 이용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하지 않는 전략이 있지 않은지 되물게 한다. 러시아의 북단 툰드라에서 순록을 유목하는 네네치족이 스노우모빌을 끌며 그들의 전통적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해녀들이 스쿠버다이빙은 거부하면서⁴⁾ 오토모빌을 이용하는 것은 주체적이고 또한 공동체적이며 생태적인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⁵⁾ 그래서 제주 해안가 마을에서 오토바이는 해녀들의 노동수단 이상의 상징물이 아닐까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해녀들의 오토바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오토바이를 도입, 물질과 밭일이라는 자신들의 노동을 생산적으로 수행하면서 나름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젠더 모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관료제도의 정교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노동이 하나의 의무이며 권리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⁶⁾는 관점이나 혹은 1980년대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 편입되어 제주 해녀들이 진취성을 잃고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되어 ‘비공식적, 사적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관점,⁷⁾ 혹은 ‘여성의 노동이 여성의

-
- 4) 스킨스쿠버는 수산업법상 불법이지만 개인이 바다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양식장 내에서는 ‘해녀 스쿠버다이빙’을 고용하기도 한다. 행원리 은퇴해녀 장문옥씨의 딸은 전라도 초도 양식장을 다니는데 스쿠버물질을 한다. 2010년 10월 20일 장문옥씨 자택에서 면담.
- 5) 제주 잠수들의 생태적인 어로방식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 안미정, 『제주 해녀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줄고, 『제주 잠수 물질의 생태학적 측면』,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 6)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 편, 푸른사상, 2002, 47쪽.

사회적 지위에 이르지 않는다는⁸⁾는 기존의 관점이 현재 제주 해녀들에게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토바이’라는 미시적 대상으로 제주 해녀 사회의 전반적 변화와 그에 따른 주체, 곧 해녀들의 적응 전략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자기 삶에 끌어들이 자신의 노동을 효율적으로 행하며 사회적 활동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가 하는 소박한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지금까지 해녀와 관련하여 많은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근간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민속학적 관점에서 해녀기술과 바깥물질 등 해녀 민속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⁹⁾ 해녀들의 생태적 민속지식과 언어표현의 미학을 다룬 연구,¹⁰⁾ 울진군 죽변 지역에 이주한 제주 해녀들의 적응 과정을 다룬 연구,¹¹⁾ 해녀 민요에 관한 연구,¹²⁾ 비교민속학의 입장에서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를 다룬 연구¹³⁾가 있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제주 해녀의 물질 이야기 및 물질 기술을 문화적으로 접근한 연구,¹⁴⁾ 해녀들의 전통적 어로행위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¹⁵⁾ 마을어장 자원의 채취방식과 해녀들의 공존의 문제를 다룬 연구,¹⁶⁾ 해양문화사 속에서 해녀 문화의 가치와 보전을 다룬 연

- 7) 조혜경,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1999.
- 8) 하이디 하트만,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분업』, 『제3세계 여성노동』, 창작과 비평사, 1985.
- 9)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6.
- 10) 좌혜경, 『해녀 생업 문화의 민속지식과 언어표현 고찰』, 『영주어문』 15, 2008.
- 11) 오선화, 『죽변 지역 이주잡녀의 적응과정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12) 좌혜경, 『해녀노래 현장과 창자 생애의 사실 수용분석』, 『영주어문』 7, 2004;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上·下, 민속원, 2001.
- 13) 좌혜경 외, 『일본스가지마의 아마와 제주해녀』,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5.
- 14) 유철인,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 해녀의 물질 이야기』, 『문화인류학』 3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제주해녀의 몸과 기술에 대한 문화적 접근』, 『제3회 민속학국제학술회의 발표집』, 한국민속학회, 1999.
- 15) 안미정, 『제주 해녀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구¹⁷⁾가 있다. 또 역사학적 접근으로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와 입어관행 분쟁으로 해녀들의 삶의 실상을 다룬 연구,¹⁸⁾ 제주해녀가 역사적으로 물질을 담당하게 된 과정을 밝힌 연구,¹⁹⁾ 제주 해녀 투쟁을 다룬 연구²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제주 해녀사회의 성역할 구조가 체계화되는 과정을 살핀 연구,²¹⁾ 제주 해녀들의 근면성 신화를 해체하고 실체를 밝히려 한 연구,²²⁾ 제주 해녀들의 자기 정체성을 살핀 연구,²³⁾ 한국 여성의 젠더 모델로서 제주 해녀를 다룬 연구²⁴⁾가 있다. 이외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녀어업이 다루어지기도 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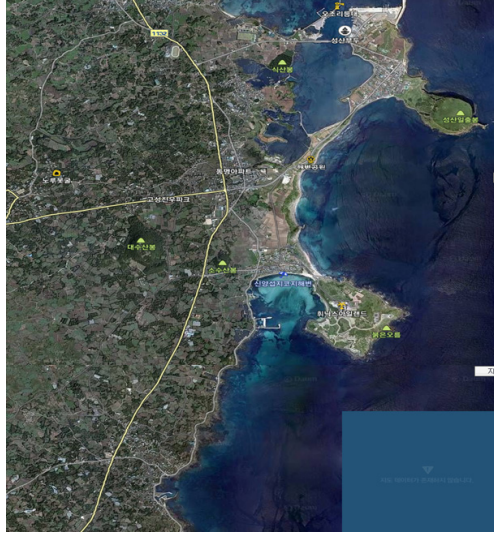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토바이’라는 해녀들의 탈것에 초점에 맞추어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한 자기 노동의 주체적 실현 과정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2. 1980년대 중반 어느 해녀와 ‘88오토바이’

필자가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해녀들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신양

-
- 16) 안미정, 『마을어장 자원의 채취방식과 공존 한국 해녀들의 작업 형태 비교』, 좌혜경 외 앞의 책.
- 17) 이경주·고창훈, 『제주 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보전과 계승』; 한림화, 『해양 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좌혜경 외 앞의 책.
- 18)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역사민속학회, 2004.
- 20) 박찬식,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30, 탐라문화연구소, 2006; 강대원, 『제주 해녀 권익투쟁사』, 제주 문화, 2000.
- 21) 조혜정, 앞의 책, 1999.
- 22)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 1996.
- 23) 안미정,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논문, 1997.
- 24) Ko, ChangHoon, 『A New Look at Korean Gender Roles: Jeju Women Divers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Asian Women』 23, Vol.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7.
- 25) 원학회, 『제주 해녀어업의 전개』, 『지리학연구』 10, 1985; 진관훈,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각, 2004.

리의 해녀들이다. 고성·신양은 성산읍 일출봉 남쪽 섬지코지 주변을 마을바다로 갖고 있는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해안가 마을이다. 고성·신양은 현재 행정상으로는 두 개의 마을이지만 원래는 한 마을이었다. 신양리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고성리 정씨, 김씨 등이 어로와 해조류 채취를 위해 신양리 방뒀개로 이주한 것이



설촌의 시작인데 1933년에 고성리 2구가 되었고 1951년 고성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양리가 되었다.²⁶⁾ 하지만 마을이 분리된 지가 60여 년밖에 되지 않아 제1종 공동어장인 마을바다를 공유하고 단일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바다가 그들의 삶에 있어 우선시되는 기준인 것을 보여준다. 고성, 신양, 성산 인근의 우도, 일출봉, 섬지코지 등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이곳 주민들, 특히 해녀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어로행위인 물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예로부터 미역·우뭇가사리·톳·전복·소라·성게 등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²⁷⁾

26)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읍지』, 태화인쇄사, 2005, 972쪽. 고성·신양리 마을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은 줄고, 『제주 잠수 물질의 생태학적 측면』,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91-93쪽 참조.

27) 정의면(현 성산읍) 고성, 신양리는 예전부터 어패·채조류가 많이 분포해 해녀들이 조밀하게 분포했다. 榑田一二에 의하면 1937년 당시 애월, 대정 등 서쪽의 2개면과 구좌, 정의 등 동쪽의 2개면에 해녀들이 가장 조밀하게 분포했다. 섬의 동쪽은 바다가 깊은데다 용암 암반이 노출되어 있어서 난류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해조류의 발육을 도와 쭈파 동시에 유착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예전부터 어획물은 즉시 환금되었기 때문에 특히 제주, 한림, 서귀포, 성산포 등 도읍부근의 잠녀가 다투어 채집하였다. 榑田一二 저, 홍성목 역, 『제주도』, 우당도서관, 1999, 180쪽.

현재 고성·신양에는 상시적으로 백십 여 명의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해녀들은 보름을 기준으로 9일 작업하고 6일 쉬며, 다시 9일 작업하고 6일 쉰다. 달이 작은 경우는 8일 작업하고 6일 쉰다. 물론 이때 쉰다는 것은 물질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런 날에는 주로 밭일을 가거나 마늘수확, 콩털기 등 일품을 팔러 가기도 한다. 작업하는 날 아침 해녀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탈 의장에 가서 물질도구를 갖춘 후 ‘물에 든다.’ 물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오전 9시께 물에 들면 기량에 따라 대여섯 시간 자맥질을 한 후 소라, 성게, 전복, 문어 등의 해산물로 채운 망사리를 들고 물에서 나온다. 물에서 나오면 그날 채취한 물건을 저울에 달아 근수가 적힌 전표를 받는다. 그리고 ‘물건’을 대행인에게 넘긴 후 탈의장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동료들과 라면이나 커피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눈 후 오토바이를 타며 집으로 돌아간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고성·신양리에서 여러 차례 지켜보았으며, 구좌읍 행원리에서도 2차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개별 방문해 생애사를 들으며²⁸⁾ 그들이 언제, 무엇을 계기로 오토바이를 ‘탈것’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3년 전 70대의 나이에도 아랑곳 않고 오토바이를 배워 타고 다니는 행원리 어느 할머니처럼 해녀들에게 오토바이는 그들의 현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또한 내륙의 어느 농촌 마을이나 소도시의 할머니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허리가 구부러져 낡은 유모차에 기대어 걷는 모습들과는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극히 현상적인 것이라 치부할 수도 있으나 그들 삶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쉽게 간과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성 노동, 곧 여성으로서의 자기 노동을 실현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여성 주체’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고성·신양리에서 언제부터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28) 고성·신양리의 현지조사는 2010년 5월 20~23일, 9월 17~22일, 10월 21~24일, 2011년 1월 11일 이루어졌으며 구좌읍 행원리의 현지조사는 2010년 10월 6~9일, 10월 21일 두 차례 이루어졌다.

고성에서 제일 먼저 오토바이를 탄 해녀는 ‘똥똥이어멍’²⁹⁾이다. 그는 1985년 우연히 가까이 사는 친척에게서 스쿠터와 비슷한 일본제 오토바이를 얻었다. 당시에 그는 고성리 앞동네 아래 동남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물질을 곁하고 있었다.

그때는 아는 사람이 쯤맨한 거. 일본 거 쯤맨한 거야. 일본서 일본사람 타는 거야. 그거 누가 주길래. 줘서 탔어. 그 이후로 중고 중고 해서. 처음에는 타는 사람 없었어. 나중에 되니까 막 탔지. 나는 성격이 좀 억세서. 무섭기야 무섭지. 운전이니까. 해 가니까 담력이 생기고 일본 오토바이는 좀 작아. [아마 여자로서는 야이가 먼저 타실거야.](그때 물질 하실 때) 아니 그때는 그냥 돌아다녔지. [그때는 물질 허는 사람도 타지 아녘을 거라]안 탔수다. 그때는 난 오토바이 타네, 요번에 경신하고 경만 해도 십년 돼야 경신하는 거니부넨. 나는 성격이 와일드한 성격이라 이런 거 뭐 하는 거 좋아하여.³⁰⁾

그런데 똥똥이어멍은 단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을 뿐’ 물질 하러 갈 때 오토바이를 탄 것은 아니었다. 즉 동네에 볼 일 보러 다닐 때 오토바이를 잠깐씩 탔을 뿐이다.

신양리 해녀들 가운데 ‘일의 효율성’을 위해 똥똥이어멍보다 더 먼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상군 해녀 ‘진수어멍’이다. 그녀가 오토바이에 도전하던 때는 1983, 4년 무렵이었다.

난 있지, 그때 37세에 남편을 사별했는디 그때 큰아들이 중3이고 막내가 네 살이었는데, 혼자 4남매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 남편이 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빚을

29) 고성리 거주 전직 해녀(67세). 소라허채까지 그만 둔 것은 3년전이다. ‘허채’는 일정 기간 금한 해산물의 채취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양식장의 소라허채는 1년에 두어번 행해지므로 소라를 채취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 상시적인 물질을 하지 않는 해녀들도 소라허채에는 참여한다. 자연양식장에서 공동으로 채취하고 공동으로 판매한 후 공동으로 분배한다.

30) 2010.10.21 아침 현재복씨 닻.

그 때 당시 1200만원 남기고 돌아가셔서, 돈 잃고 사람 잃고 혼자 살려고 무지 고생 했는데 밭에 신거다 줄 사람도 없고 걸어서는 너무 힘들어서. 그 때 내가 신양리에서 밭을 13개를 빌려서 하고 조천에 외갓집 밭까지 빌려서 했는데. 그땐 한달이면 계속 물질 했는데, 지금은 보름 하고 한 물끼 쉬고 그러지만. 눈 올때, 연탄 보일리지만 연탄 사기도 힘들어서 밖거리 작은 집에서 군불 때며 살았거든. 연탄 사는 게 아까워서. 오전에 밭에 가고 물때 맞춰서 바다에 가고 바쁘니까 애들 얼굴도 못보고 군불 때다가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아이고 오토바이라도 사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땐 30만원에 중고 사는데 가슴이 떨려서, 25만원에 샀어. 남자 오토바이 120cc짜리. 지금은 스쿠터 타지만 그때 남자오토바이를 탔지. 내가 자전거를 타니까 동생이 이렇게 타는 거랜 알려줘서, 나랑으로 밀었다가 조금 타고 밀었다가 조금 타고 하는 식으로 배완. 오토바이 타니까 빨리 가지만 밭에도 빨리 가야지, 바다에도 빨리 가야지 성격이 급해서 잘도 자빠전. 잘 넘어져왔어.

진수어명은 37세에 홀로 되어 4남매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다. 신양리에서 남의 밭을 13개 빌려 밭농사를 지으며 물때에 맞춰 바다에도 다녔는데 그녀를 태워다 줄 사람은 없었다. 오전에 밭일을 하다가 ‘물때’에 걸어서 바다에 가는 것이 힘들었던 차에 조천리 외갓집 밭을 빌리면서 오토바이를 사게 되었다. 당시 그녀가 산 오토바이는 120cc ‘대림혼다 88’로 소위 88오토바이라 불리던 것이다. 조금씩 혼자 연습하며 오토바이를 타게 된 후 그녀는 신양리서에서 조천까지 40여 분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외갓집 밭농사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밭일과 물질을 하는 것을 보며 3, 4년 후 차츰차츰 다른 해녀들도 하나 둘씩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진수어명 다음으로 신양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것은 ‘순이’씨였다. 그 역시 남성용인 ‘88오토바이’를 탔다.

그 후 진수어명과 순이씨 등 젊은 해녀 몇은 동료 해녀들에게 오토바이 탈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성·신양리의 경우 성산리나 행원리 등 다른 마을과 비교할 때 마을에서 바다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다. 특히 썩지코지가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므로 썩지코지를 둘러싼 동곶과 섯곶 바다는 ‘물건’이 많은

것에 비해 접근성이 취약했다. 고성리 웃동네나 큰동네에서 고성 앞바다를 가려면 걸어서 40여 분이, 썰지코지를 둘러싼 바다를 가려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린다. 마찬가지로 신양리에서 고성 앞바다나 썰지코지를 갈 때도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구덕에 3kg 가량의 연철과 호미·빗창·테왁, 고무옷 등을 챙겨 등에 지고 걸어서 바다에 가면 물에 들기 전에 이미 기운이 빠졌다고 한다. 지금은 수협대리인이 바닷가 해안도로나 ‘해녀의 집’ 앞까지 와서 바로 물건을 넘기지만 당시만 해도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이나 소라 등을 구덕에 담아 지고 고성리 동남 버스정거장 부근까지 걸어 나와서 ‘상고’에게 물건을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진수어멍을 비롯, 젊은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제안하고 다른 해녀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소라어업 총허용어획량 제도(TAC)에 따른 물질시간의 고정화도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으로 해녀들이 물에 드는 시간은 개인의 자유다. 현재도 공동양식장 허채나 소라 허채를 제외하고는 물질작업의 시간과 여부는 개인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소라의 어획량이 정해지면서 소라 채취 작업 시간이 일일 3시간 혹은 4시간으로 제한되었는데 이때 젊은 해녀들의 오토바이가 주목받은 것이다. 물질 후 한 시간 가량을 걸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탄 해녀들은 5분 혹은 10분만에 집에 도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 가량의 이동 시간을 단축해주고 짐을 실을 수 있었으므로 곧바로 “야 누가 타면 나도 탐져”하는 식으로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마을 해녀들에게 전파가 되었다.

우리 한 15년 됐어. 해녀들은 다 타. [거저 한 18년 됐어. 우리 부락은 18년 됐주.] 오토바이 (처음) 타는 거? 젊은 아이들 훗쓸 처음 배워서. 처음에는 남자 오토바이 탔지. 그때는. 해녀가 젊은 해녀들이. 젊은 해녀들이 들어가 진수어멍하고 순이하고 제일 먼저 탔구나. 남자 오토바이. 88인가. 그거 타고 그 다음에는 요즘 타는 오토바이 배와그뻥 타렌들 막 허니까 저 위디 가서 오토바이들 빌려서 타보면서 허다가 중고 사다가 인저 이거 이렇게 요렇게 놔서 배우니까 뭐 한 메칠 배우니까 잠깐 배와지대.³¹⁾

상당수의 해녀들이 한동안 원동기 면허증이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자 성산포 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설득해 원동기 면허증을 따도록 유도했다. 고성리 잠수회장 정광자씨는 10여 년 전 고성리, 오조리, 성산리, 온평리 네 개 부락에서 100여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원동기 면허를 따기 위해 함께 면허시험장에 갔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이때 경찰서에서는 면허장에 갈 때 버스를 대절해 주었다. 그는 자신은 한 번에 면허시험을 통과했지만 세 번 혹은 네 다섯 번째에 합격한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해녀들이 나이 오륙십이 넘어, 혹은 칠십이 넘어³²⁾ 오토바이를 타기로 마음먹고 ‘지서의 순경’ 도움을 받아가며 면허시험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것은 이 마을이 바다가 멀어서 다니기 힘든데다가 경운기로 혹은 트랙으로 실어다 주는 남편에게 물질을 의존해야 하는 측면도 작용했다.³³⁾

오토바이는 우리가 바다에 땀기젠 허난 힘들영. 남편이 경운기로 우릴 싣거당 주고 싣거 오고 했져. 그후록 했져. (중략) 아니 순경이 허기 전에 우리가 타고 싶어 했는디 순경이 지원해주고 면허증 따는 거 지원해주고, 타는 건 우리 스스로가 오토바이 타고 싶어헤. 여기서 우리 탐 시작허나넌 이디도 시작하고 저디도 시작하고 (행원은 오래 탄 사람이 5, 6년 정도 됐대요) 우리는 상군이구 아이(하군해녀)구 ‘느타면 나도 탐져’, 바다가 멀어부난 고성서 신양리 가젠 허면 멀기 때문에 고성 사람들이 많이 땃주게. 한 사람이 시작허난 나도 느도 허난.³⁴⁾

(물질 안 하면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물질 안 허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 가끔 있지. 대개 다 물질 허는 사람이 타. 물질 허었다 말았당 하다가 설러

31) 2010.10.22 고성·신양 마을바다 오등에 앞쪽 해변가에서 소연할망(72세), 고애순 상군해녀(48세) 면담.

32) 행원리 해녀 강등자씨(73세)는 70세에 오토바이를 배웠다. 그의 뒷집에 사는 일흔 둘된 해녀는 오토바이를 사고 집에 2년이나 세워 둔 뒤에야 오토바이를 탔다.

33) 제주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2 제주여성의 생애, 『살았지만 살았जू』, 2006.

34) 고성리 해녀회장 장광자씨, 10월 21일 광치기 해녀의 집에서 면담.

버리고 나서 배와 노니까봐서 타고. 생활여건이 그게 편안하니까. 그전에는 두렁박 지고 가고 오고 그게 불편하다가. 두렁박 지고 거기 가야지 그 물건 하고 지고 와야지 그렇게 했거든.³⁵⁾

해녀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밭이나 바다에 다니기 전까지 종종 남편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1970년대 중반 경운기가 등장하고 1970년 후반부터 보편화 되어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와 ‘벗해가는 해녀’들을 태워다 주게 되었는데 바다가 멀리 있는 마을에서는 이것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들에게 의지해 바다에 물질을 가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능률적이지 않았다. 우선 경운기나 트럭을 소유한 남편이 물때에 맞춰 바다에 실어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양리에서는 여든이 넘는 해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에 물질 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십오년 전 고성·신양리에서 대부분의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일이 우연치 않게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3. 1995년과 소라값 그리고 ‘해녀인구’

제주도의 어업생산은 1970~80년대의 소라, 톳 등 패류 및 해조류 위주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근해어업과 육상수조식 양식과 같이 보다 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에 의한 활·선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³⁶⁾. 그런데 제1공동어장에서 해녀들이 채취하는 주된 수산물은 소라이다. 즉 소라 채취는 제주도 마을어업의 주 소득원이었다. 소라는 1985년 최고치인 3.163톤을 기록했지만³⁷⁾ 1980년대 후반 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제주에선 1991년 전국 최초로 소라어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³⁸⁾ 소라는 전복과 달

35) 뽕뽕이어멍 면담(고성리 거주, 전직 해녀, 67세/ 2010.10.21 현재복씨 자택).

36)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제주도지』 권4, 제주도, 2006, 318쪽.

37)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위의 책, 330쪽.

리 양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라어업에 대한 TAC 제도가 정착되면서 점차 소라자원이 회복되어 최근까지 제주의 소라 생산량은 대체로 2000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라는 전량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데 1995년은 소라값이 최고에 달했다고 한다.

이 현상은 3년 정도 계속 되었다고 하는데 해녀들은 ‘소라값이 좋았으므로’ 일정하게 정해진 소라채취 작업에 참여하고자 했다. 이 마을 역시 대부분의 제주 해안가 마을처럼 반농반어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과 밭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필요했는데 당시의 소라값의 상승과 오토바이의 전격 도입은 이러한 경제구조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때 뗏년도니. 15년전. 그때가 소라가 1킬로에 7천5백원 할 때.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내가 소라젓 허니까 최고로 잘했정 끝으나넨. 그때 2,3년이 돈 하영 벌었어. 나 가이 장개 보낼 때 하여부난 잊쳐버리지 않아.³⁹⁾ 그때가 그때 3년 동안이 우리 세대에서 가장 좋은 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즉 1995년은 일본에 수출하는 소라값이 최고로 올라 있었다. 아래 표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이다.⁴⁰⁾

〈표 1〉 주요품목별 수출추세

(단위:천\$)

연도	소라	삼치	복어	넙치	문어	돔	찐뚱	계관초
1980	7,124	914	-	-	-	371	1,644	-
1986	6,472	764	2,700	-	3,295	335	3,468	639
1989	3,880	-	2,794	-	5,946	405	3,743	2,494
1990	6,586	-	954	-	5,665	55	2,410	2,105

38)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위의 책, 319쪽.

39) 해녀들의 인지 체계-특별한 사건이 있던 연도를 기억할 때 주변의 사람과 연결지어 기억하고 기억 속에서 그걸 끄집어 낼 때도 마찬가지다.

40)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위의 책 342쪽에서 재편집.

1992	7,321	-	2,214	529	411	-	620	1,944
1995	16,780	861	1,505	6,466	-	-	2,138	690
1998	9,735	1287	366	8,722	-	-	2,535	143
2000	13,478	467	858	17,843	-	-	2,522	888
2003	9,629	-	-	34,311	-	-	3,103	188

위의 <표>에서 주요 수출 품목 중 해녀들이 채취하는 것은 소라·문어·
 톳·계관초이다. 문어는 소량 생산되는 만큼 수출되지 않고 있다. 소라의 값을
 다른 품목과 비교해 보면 소라가 해녀들에게 상당한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라의 값은 1995년 최고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미
 TAC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소라 생산량이 다른 해에 비해 많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해녀들은 값이 좋을 때 소라 채취 작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 ‘주목받은 것이 오토바이’였던 것이다. 그 무렵 해녀들은 오토바
 이를 보고 ‘막 타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미 오토바이를 배운 신양리 진수어
 명이나 순이 등 상군해녀들은 오토바이를 타며 물질을 다녔기에 그 효율성을
 잘 알았다. 그래서 상군해녀를 중심으로 한 오토바이 타기는 고성·신양 해녀
 들에게 곧 퍼지게 된 것이다. 즉 해녀들은 오토바이의 이점, 즉 기동성과 편리
 함을 적극 인정, 전략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렇지 않은 해녀들과 ‘이동시간’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으로 늦게 오토바이를 배운 해녀들은 은근히 속을 태우기도 했다.

아이구 미리 배울 걸. 밭에 먼 데도 걸음 다니고 하다가 미리 못 배운 것이 막
 그때는 억울해가지고 이제 와서 배와지명 하다가. 금방 시간이 다 되도 어디 일 갔
 다와도 확 타명 가고⁴¹⁾

41) 고성리 소연할머니(72세) 10월 22일 아침 오등에 해변가에서 면담.

그땐 해녀분들이 많이 탔어, 오토바이를 2/3정도 탔을 거라. 안 타면 못 쫓아다니고, 걸어서는 못 쫓아다니니까 나도 배웠지. 물질 하러 바다에 가려면 한 시간 걸려, 또 돌아오면 허뿔 한 시간 걸리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들은 5분, 10분이면 집에 도착해 목욕하는 거라.⁴²⁾

고성리 소현할망과 신양리 김수자(가명)씨는 당시 50대 중반 나이였지만 오토바이를 배우지 않았었다. 그 무렵 2/3 정도의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해녀들을 ‘걸음’으로 쫓을 수 없기에 자신들도 오토바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소현할망처럼 오토바이를 늦게 배운 사람들은 ‘억울해 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물질 작업 전후 밭일 등을 하는 경제구조에서 이동 시간의 단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밭에서 일하는 것뿐 아니라 수놓음하러 갈 때나 일품을 팔러 갈 때 기동성의 여부는 큰 관건이 되었기에 해녀사회에서 오토바이는 전격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95년은 매년 줄어드는 해녀인구가 한동안 지체되는 기점이다. 아래 <표>⁴³⁾에서 보듯 해녀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표 2> 제주도 잠녀 인구수

연도/인구	전국어업인구수	제주어업인구수	잠녀인구수
1913			8,391
1932			8,862
1960			19,319
1969			20,832
1970	1,165,232	85,230	14,143
1975	894,364	68,038	8,402

42) 신양리 해녀 김○○씨 71세(2011. 3.16 전화인터뷰).

43) 안미정, 『제주 잠녀의 해양 어로와 지속가능성』, 전경수 엮음, 『사멸위기의 문화유산』, 민속원, 2010, 313쪽에서 가져왔다. 인구비례는 표시하지 않았다.

1980	844,184	49,195	7,804
1985	689,351	42,730	7,649
1990	496,089	37,643	6,827
1995	347,070	26,477	5,886
2000	251,349	21,281	5,789
2001	234,434	19,487	5,047
2002	215,174	20,390	5,659
2003	212,104	19,381	5,650
2004	209,855	19,737	5,650
2005	221,267	18,617	5,545
2006	211,610	19,388	5,406
2007	201,512	19,186	5,279

이 <표>에 따르면 환금작물 재배로 1969년에서 1975년 사이에 많은 수의 해녀들이 물질을 그만두어 해녀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이후 5년 단위로 6백, 2백, 8백명씩 감소하다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천여명이 감소한다. 그런데 1995년 이후로는 다시 백여 명에서 2백여 명 정도로만 자연 감소하고 있다. 해녀 인구가 1995년 5889명, 2000년 5789명, 2005년 5545명, 2007년 현재 5279명인 점을 고려할 때 ‘1995’는 분명 의미가 있다. 사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해녀 인구가 백명밖에 줄지 않고 이후 더 이상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해녀인구의 감소 추세가 이 시기에 지체되었다는 것은 이 때 그들의 물질 행위를 지속시키는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소라값 상승과 이에 따른 오토바이의 전격 도입이라고 본다.

제주 해녀들의 노동으로서 ‘물질’을 주목할 때 ‘근대’라는 시점은 제주 해녀들과 그들의 물질 행위에 일대 전환이 온 시기이다. 근대는 제주 해녀들이 일제 자본주의제 하에서 임노동의 형태로 육지나, 일본·중국·러시아까지 출가

44) 고성리 현재복씨도 물질을 이 시기에 그만두었다. 그는 남편이 하는 감귤 과수원에 온 식구가 매달려야 한다는 데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십 년간 해온 물질을 ‘설러버렸다.’

물질⁴⁵⁾을 가며 노동자로서 스스로 자각하게 된 시기이기 때문이다.⁴⁶⁾ 그런데 기술적 혹은 도구적 측면과 관련해 해녀들의 물질 행위를 고려했을 때, 획기적 변화로 종종 언급되는 것은 ‘20세기 초의 물안경’과 ‘1970년대의 고무옷’의 도입이다. ‘물안경’은 수중 세계를 직접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해산물의 채취를 늘리고 양촌의 사람까지 해촌으로 오게 만들 정도로 제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⁴⁷⁾ 한편 현재 해녀들이 착용하는 고무잠수복은 무명으로 만든 물옷과 달리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여 해녀들의 어로시간 및 어로패턴을 바꾸었다.⁴⁸⁾ 고무옷은 추위에 오래 견딜 수 있게 한 점, 맨살을 보이지 않게 한 점에

45) 제주해녀의 출가는 1895년 경상남도 부산부 목도에 출어한 것이 처음이다. 그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1932년에는 5078명이었고 그들이 송금한 금액은 1,100,000원이었다. 樺田一二 저, 홍성목 옮김,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1930년대의 지리 인구 산업 출가 상황 등)』, 우당도서관, 2005, 120쪽. 김영돈은 1937년 <濟州道勢要覽>기록에 의거, 부산 일대에 물질을 나가기 시작한 제주 해녀들이 각도 연안부터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등의 연안에도 출어하였다고 정리한다(김영돈, 앞의 책, 387쪽).

46) 권귀숙은 해녀라는 존재는 일본 식민 자본주의와 가장 가까운 변경에 위치했던 제주도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이 집단은 조직의 경험과 임노동의 경험을 지닌 일종의 직업집단으로 보고 있다(『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제』, 『한국사회학』 30, 1996, 235쪽).

47) 19세기말 일본인 해조류 상인들에게 제주도의 해산물 특히 해조류와 패류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19세기말 혹은 20세기 초기에 해녀 쌍안경(엄쟁이눈)이 보급된다(강대원, 『해녀 연구』, 한진문화사, 1970, 68쪽, 원학회, 『제주 해녀어업의 전개』, 『지리학연구』 제10집, 1985, 186쪽에서 재인용). 이 안경의 도움으로 종래 수중 작업시 2~3미터에 불과했던 시계가 20m까지 크게 넓어졌고 눈의 피로가 현저히 줄게 되어 해녀어업에 기술상의 진보가 일어나 제주 경제의 핵심이 양촌에서 해촌으로 옮겨졌다고 한다(원학회, 위의 글, 1985, 186쪽). 그런데 이즈미 세이이치는 1937년 제주에 와서 예전에 해녀들이 유리를 사서 해녀들 스스로 ‘눈’을 만들어 썼지만 당시에는 일본제 안경을 쓰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泉靖一 저(1966)·홍성목 옮김(1999), 『제주도』, 우당도서관, 284쪽) 이전 시기에 맨눈으로 작업을 했다고 단언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각 마을마다 빗장이나 호미 등을 만드는 집이 한 군데씩 있었고 현재 마을의 규모에 따라 그런 ‘빗장장이’가 존재한다는 점(은평리 해녀 현제월씨 제보: 2010.9.20)을 고려할 때 물안경을 만드는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김영돈(1996)이 지적하듯 애월면 신임리(엄쟁이)에서 만들어진 ‘엄쟁이눈’, 구좌면 한동리에서 만들어진 ‘켓눈’이 있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일본식 물안경은 해녀들이 만들어쓰던 안경보다 밝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눈안경의 도입이 제주 경제의 중심을 바꿀 정도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한다.

48) 가령 예전에는 오전에 1회, 오후에 2회, 대략 하루에 3, 4회 작업하고 중간중간 불턱에서 몸을 말리며 쉬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발에 일을 갔다가 물이 따듯할 즈음

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연철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 장시간 일함으로써 ‘해녀병’을 유발한 점은 부정적으로 비친다. 여하튼 ‘물안경’과 ‘고무옷’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의 물질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오토바이는 좀더 사회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성산읍 고성·신양리에서 15년 전, 다른 지역에선 대략 10여년 전부터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물질을 다니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사건’이었다. 자기 노동의 자율적 실현이란 측면에서 해녀들은 보다 자유로워졌다. 그들은 바다에 ‘시경 오고 시경 가는’ 일을 남편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즉 오토바이는 물질이란 노동행위에 효율성과 자율성 및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그들 남편들에게 물질하는 동안 ‘앉아서 기다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함으로써 남편들의 노동을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

오토바이 탄 지는 한 10년 돼서. 처음에 물에 갈 때 할아버지한테 시경 달라고. 자기대로 가야 올 때도 마음대로 오는데, 기다리는 것 보면 빨리 나와야 하고(말을 흐림). 거의 다 오토바이 타. -신양리 김○○씨

(남편들도) 미역 채취 때 물에서 거들어주지. 다른 지방은 천초나 우뚝가사리 채취 시 부인을 도와주고 소라는 계속 마중 나가는 디 물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 -신양리 김○○씨 남편

신양리 상군해녀 김○○씨는 ‘자기대로 바다에 가야 올 때도 마음대로 오는데 (남편이) 기다리는 것을 보면 빨리 나와야’ 할 정도로 기다리고 앉아 있는 남편의 존재가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남편들이 미역이나 소라를 마중⁴⁹⁾하는

다시 바다에 들던 패턴에서 아침 9시에 들어가면 기량에 따라 대어섯 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쉬지 않게 일하도록 바꾼 것이다.

49) 남편이나 가족이 해녀들이 물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물에서 들어올려 나르는 것을 ‘마중

것은 해녀들, 특히 상군 해녀에게는 필수적이다. 해녀들이 물질을 끝내고 해산물로 가득 찬 망사리를 한 시간 가량 밀면서 바닷가까지 헤엄쳐 오면 기력이 다 해서 망사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물질을 하는데 밖에 앉아 기다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한편 ‘앉아서 물질 하는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일’을 하는 남편의 입장도 편치 만은 않을 터이다. 요즘에는 마중 나온 남편들끼리 한담을 나누는 정도로 끝나지만 2, 30년 전만 해도 남편들은 ‘그늘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일하는 아내들을 기다렸다고 한다.⁵⁰⁾

하지만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며 직접 일터인 바다에 출근하므로 남편들은 그들을 실어다 날라주는 일에서 ‘놓여났고’ 대신 뭔가 일을 찾아야 했다. 신양리 정씨의 경우에는 아침에 부인이 물질 하러 갈 때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심어 놓은 밭이나 마늘밭에 나간다. 고성리 정씨는 감자밭과 과수원에 나간다. 아직도 ‘과수원만 슬슬 하고 놀고먹는’ 남편들이 고성 앞동네에 많이 있다고⁵¹⁾ 하지만 남편들은 이제 현금을 만지며 통장을 따로 관리하기도 하는 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해녀들의 오토바이는 남편들을 보다 생산적인 일터로 이끈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곧이어 해녀들에게 오토바이는 ‘밭일’, ‘계모임’, 병원이나 시장 등 기타 사적 불일에 유용한 수단이 됐다.⁵²⁾ 후술하겠지만 오토바이는 해녀들의 사회적 활동 반경을 넓히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노동이 사회적 지위

간다’고 한다. 김복희씨의 경우 소라 허체시에는 200kg까지 소라를 채취한다. 먼바다에서 망사리에 가득 든 소라를 밀면서 한시간 가량 헤엄쳐 오면 기운이 다해 망사리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마중 나간 남편이나 혹은 동료의 남편이 망사리를 들어 올려 날라준다.

50) 고성리 상군 해녀 강복순(47세)씨 남편 정경수씨 면담(2010.10.24 자택에서).

51) 고성리 상군 해녀 강복순(47세)씨 남편 정경수씨 면담(2010.10.24 자택에서). “여기 해녀 남편들 노는 사람 많아. 특히 앞동네에. 과수원만 조그만 거 한 뼤기 하고, 다 놀지 뭐. 웃동네야 좀 밭농사도 하고 그렇지.”

52) 행원리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것은 고성·신양리 해녀들보다는 역사가 짧아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 부녀회장을 비롯한 상군 해녀 5~6명이 타기 시작했고 그 후 2,3년부터는 나이든 해녀들을 몇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행원리 해녀 강등자씨(73세) 10월 21일 자택에서 면담.

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명제에 반론을 제기하게 한다.

4. 해녀의 경제력 혹은 경제권과 ‘네발오토바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질의 장점은 노동 후 바로 현금을 쥐게 한다는 사실이다. 농사가 1년에 한 번 수확 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 물질로 번 돈은 물건을 판매한 후 바로 통장에 입금이 되기에 자금의 운용 면에서 해녀들은 농사짓는 남편들이나 물질 하지 않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우위에서 있으며⁵³⁾ 좀더 주체적일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제주도 해안가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내가 번 돈은 내 것,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란 관념이 있어 부부라도 따로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가정에서 결혼 후 장남을 분가시켜 살림을 따로 살고, 부조를 개인 단위로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녀들의 수입은 그들의 능력과 그날 그날의 ‘머정’(운)에 따라 다르다. 하루에 5, 6만원 버는 정도에 그치는 이가 있는 반면 2, 30만원까지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⁵⁴⁾ 한 달 기준 대략 100여 만 원에서 300여 만 원까지 소득을 올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사는 마을이 농어촌이고 이들이 대체로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물질 수입은 어떻게 돼요)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하지. 벌어들이는 액수는 소라 잡을 때는 많고. 요즘은 성계를 잡는데 성계 잡아서 10만원도 벌곡, 15만원도 벌고. 뭐 5, 6만원도 버는 사람도 있곡. 소라 많이 잡을 때는 한번에 2, 30만원

53) 물질을 하다 남편의 강권으로 고성리에서 농사를 짓는 현00씨의 경우 현금은 항상 남편에게서 받아서 쓰는 입장이다. 그는 물질을 그만두고 돈을 자기대로 쓰지 못한 것이 생애중 가장 힘겨운 일이었다고 한다. 고성리 전직 해녀 현00씨 면담(2010.10.22).

54) 물론 해녀가 채취한 물건의 가격에서 일일 기준 0.3%, 일주일 기준 4%를 징수해 수협이나 상인 대리인에게 2%를, 어촌계 증식사업으로 2%를 징수한다. 성산리 어촌계장 고승환씨 제보.

도 올리고. 요즘 소라 안 되어서. 오늘은 10만원 벌고, 오분자기로. 어제는 7만원 벌었어. 오분자기가 킬로에 5만원 가. 지금 값이 최고나네. 근디 오분자기는 어른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나네.⁵⁵⁾

한편 해녀들이 물질이란 노동을 통해 가게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것을 그들의 남편도 인정한다.

조사자: 여자 삼춘이 물질 하시니까 좋은 점 있죠? 해녀가 부인이어서 좋은 점요?

남자삼춘: 돈 좀 벌어요고(웃음), 돈 좀 벌어요니까 좋은 거지 뭐. 그 외는 별로.

조사자: 물엿것(해산물)도 많이 먹으니까

남자삼춘: 내가 좋아하들 안 하부난 뭐 별로.

조사자: 그래도 물질해서 가게 보탬 되고

남자삼춘: 그렇지

조사자: 그럼 집안의 돈 관리는?

여자삼춘: 아니. 내가 하지. 오히려 남자가 관리하면 나도 편할 거 같은데. 우리는 원체 집안이 안 잡힌 집안이니까. 아무래도 농사해서 수확해서 자금이 나올 때까지는 돈이 안 되니까 나가 바닷가에서 번 돈으로 써야 되니까.⁵⁶⁾

고성리 정○○씨는 상군 해녀인 부인이 해녀여서 좋은 점이 돈을 벌어오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 부부는 다른 사람에게 받을 빌려 감자농사와 감귤농사를 짓고 있기에 부인의 현금운용 능력은 가게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정은 반농반어를 하는 대부분의 해안 마을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신양리 정태문씨는 집안에서 여자의 경제력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제주 해녀 사회를 모계사회라고까지 지칭한다.

55) 신양리 상군해녀 김○○씨 전화인터뷰(11월 13일). 김씨는 깊은 데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몸이 빨라서 얇은 데에서도 물건을 잘 잡아 ‘물건은 상군’이란 말을 듣고 있다.

56) 고성리 강복순 해녀 자택에서 면담(2010.10.24).

해녀는 모계사회라. 모계사회 들어봐전? 밖이서들 그러잖아. 밭에 농사는 소득이 1년에 한 번이잖아. 바다는 계속 수익이 되다보니 자식들에게 학비, 용돈 주는 것은 엄마 몫이라, 현금이 바로 나오니까. 생활의 중심이 엄마가 되지.⁵⁷⁾

그러면 언제부터 해녀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경제권을 행사했을까. 애월읍의 해안마을인 괄지리에서 발견된 19세기 토지매매문서는 당시 여성들의 토지소유를 보여준다.⁵⁸⁾ 물론 이들을 오늘날 ‘근대 해녀’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으나 같은 시기 내륙 농촌의 민가 여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주 해안가 여성의 토지 소유는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오늘날 고성리에 전설처럼 전하는 ‘한숨짜리밭’⁵⁹⁾은 해녀들의 경제권 행사가 자못 오래되었음을 말해 준다. 1940~60년대까지 온평리에서 소문난 상군해녀였던 현해월씨와 그의 여동생들 역시 결혼 전 자신이 물질해서 번 돈으로 본인 명의의 땅을 소유했다. 현씨는 결혼 후 물질을 해서 번 돈으로, 고성에서 사업이 망해 자신의 친정인 온평리로 순순히 따라와 준 남편에게 보답하기 위해 집과 땅을 남편 명의로 해주었다고 한다.⁶⁰⁾ 이렇게 해녀들이 자신 명의의 밭이나 집을 소유하는 것은 제

57) 신양리 상군 해녀 김복자씨 남편 정태문씨 전화 인터뷰(2010.11.13).

58) 애월읍 괄지리는 서쪽의 유명한 해촌마을의 하나이다. 19세기 애월읍 괄지리 토지 매매 문서에는 여성이 땅을 팔고 사는 경우가 21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소사의 경우는 시집 올 때 해운 밭과 이를 기반으로 불린 재산에 대해 남편과 상의해 자기의 조카에게 물려주었다(고창석, 『19세기 제주지방의 토지매매 실태』, 『탐라문화』 2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 또 그가 조선후기 서귀포시 대포동 강성택씨와 이지환씨의 전답매매문기 63건을 정리한 것을 보면 원씨, 현씨, 강씨 등 여성이 조상에게서 유산을 받았거나 매매를 통해 전답을 소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창석, 『조선후기 제주지방 전답매매문기의 연구Ⅱ』, 『탐라문화』 21, 탐라문화연구소, 2001). 이로 볼 때 泉靖一이 여자는 남자를 매개로 토지를 얻을 수 있으며 여자 자신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泉靖一, 앞의 책, 193쪽 참조.

59) 고성리에는 ‘고성오소리할망’이라는 상군해녀가 있었다. 그는 고성 큰밭 정약국집에 시집와서 물질을 하다가 어느날 전복을 ‘뒀는데’ 그 안에 진주가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고성 옷동네 ‘큰밭’을 샀는데 ‘한숨’에 물어들어가서 전복을 잡아 땅을 사게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 밭을 ‘한숨짜리밭’이라고 부른다. 그의 둘째딸은 현재 생존해 있는데 90세이다. 여기서 ‘한숨’은 해녀들이 한번 숨을 참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숨을 쉴때까지의 숨을 말한다.

60) 온평리 은퇴해녀 현해월씨(88세) 9월 22일 자택서 면담.

주 해녀 사회에서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 토지의 소유 권자가 남자이고 여성의 설 새 없는 노동이 가장의 재산증식으로 귀결되는 내륙의 농촌이나 소도시와는 변별되는 일이다.⁶¹⁾

제주시에 여자삼촌 명의로 된 아파트 이서. 나가 제안했주. 뭐 내 이름으로 소유 권 되어 있는 건 중요치 않으니까. 물질해서 십년 전에 여자삼촌이 구입한 거나부 난. 신양리 우리 사는 집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나네 나 이름으로 되어있고.⁶²⁾

나가 별어 자식덜 다 공부 시켜놨어. 옛날 우리 세대는 이 먹는 것도 조금 덜 허 고 돈 시귀 놓으면 밭 싸정 집 마련해정. 근디 재산은 만딱 남편 이름으로 해볼고 그 양반이 강해서 당신 이름으로 하고 신경질 날 때가 있지. 지금은 돌아가부난 도 로 나 이름으로 돌아와져. 이디 사람은 야 두 개 사면 남자 이름으로 하나, 여자 이 름으로 하나 산다. 제주도 어머니가 강해부난. 다른 거 농사해도 돈 날 때가 어시난 미역 톨 해서 쌀 사먹고 자식 가르치고 밀감 시작하며 돈이 오르주만.⁶³⁾

위와 같이 고성리나 신양리 해녀들은 자신이 번 돈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명 의로 집을 소유하기도 한다.⁶⁴⁾ 그런데 같은 고성리나 신양리에 거주한다고 하 더라도 부인이 물질을 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밭농사만 하는 경우는 이와 사정 이 다르다.⁶⁵⁾ 해녀들은 특히 중산간에서 여성이 본인 명의의 땅을 소유한 경우 를 보지 못했으며 중산간으로 시집 갈 경우 자신의 경제권을 제대로 주장할

61) 김진명, 『굴레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1993, 109-113쪽 참조

62) 신양리 상군해녀 김○○씨 남편 정○○씨 제보(57세 신양리 거주/2010.11.13 전화 인터뷰).

63) 고성리 해녀회장 장광자씨 고성 앞바다 팽치기 해녀의 집에서 면담(2010.10.22).

64) 이는 바닷가 마을인 구좌읍 행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등자씨 또한 자신이 물질 해서 번 돈으로 자신 명의의 밭을 소유했었는데 최근 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돕기 위해 팔았다고 한다. 행원리 해녀 강등자씨(73세) 자택에서 면담(2010.10.21).

65) 泉靖一에 의하면 양·산촌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해촌의 여성과는 달랐다. 유교의 영향 하에 있던 양산간 지역에서는 가부장제적 질서속에서 지위는 없이 오로지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존재한 반면 해촌의 여성은 일가를 지배했다(泉靖一저, 홍성목 역, 앞의 책, 1999, 193쪽 참조).

수 없었다고 한다. 아래 사례는 경제활동의 주체였던 해녀가 전업농을 만나 그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

물질 허구 목포서 매역 장사 해서 번 돈으로 온평리서 밭을 두 개나 샀는데 고성리로 시집왕 그 밭 팔아그네 고성 옷동네로 이사완 집을 사고 밭을 사넌, 그뎨 나 이름으로 하고 싶지 않았고 하려고도 생각 안 해서. 또 이 고성서도 물질 해서 번 돈으로 옷동네 밭을 사고 동남에 작은 집을 샀는데 저 양반이 단독으로 매매해버런. 나는 고성에 와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혼자 나가서 살면 2년에 밭을 하나씩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었는데 아이덜 지키려고 힘들게 무더 앉안겨라. 나가 그 거만 생각허민 지금도 섭섭허영. 게나넌 여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자 이름으로 사기도 험다게.⁶⁶⁾

온평리 상군해녀로서 1960년대 말까지 육지물질을 다니며 자신이 직접 미역 등을 판매해서 상당한 돈을 벌어 본인 명의의 밭을 소유하고 있던 현씨는 결혼 후 고성리로 이사 오면서 그 밭을 팔아 남편 명의로 집을 사고 밭을 샀다. 그런데 이러한 매매 과정에서 그는 아무런 경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것은 본래 해촌 출신인 그녀와 농사만 해온 시대,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 때문이었다.⁶⁷⁾ 결국 그가 번 돈으로 산 땅은 남편 소유가 되었고, 남편은 과수원을 확장하기 위해 그 땅을 임의대로 팔았다. 현씨는 1970년대 초 남편의 강권으로 물질을 그만두고 남편과 굴 농사에 전념하게 되면서부터는 자기대로 돈을 만져본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현씨의 사례는 해안가 마을에서 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던 해녀가 해촌마을과 문화가 다른 양촌의 엘리트출신 전업농인 남편

66) 고성리 은퇴해녀 현○○씨(73세) 자택에서 면담(2010. 10.24).

67) 泉靖—은 제주도의 양산촌에서는 남자의 지위가 높고 주인은 일가를 독재적으로 지배하며 모든 재산과 여자들의 노동은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여자는 노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보통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남편 또는 이에 대신하는 남자를 중개로 해서 경작할 만한 토지를 얻어서 자기와 남자와 아이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해촌에서는 이와 상반되는데 섬의 관행으로 어업의 수입은 일가족 안에서 따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 남편은 처의 허락 없이 처의 수입에 손 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남편은 처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泉靖—저, 홍성목 역, 앞의 책, 1999, 193-194쪽 참조).

과 살면서 그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해녀들이 물질을 하여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이렇게 해녀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가게를 운영하며 한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주체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사는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오토바이는 2년 전에 네발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그전에는 세발 탔어. 헐어서 2년전 새 걸로 교체한 거부난. 저 동남 오토바이가게에서 샀지. 나가 혼자 가그네. 인터넷으로 찾아서 맘에 드는 거 확인하고 다음에 할망한테 보여줬어 의논해서 혼자 가서 사왔지.⁶⁸⁾

여긴 오토바이 중고 잘 안 사. 바닷바람이 불면, 바람에 잔물이 이서. 또 메역이 영 소리영 물건 신고 오젠 허민 잔물이 찰찰 뇌넨 새것 사야 오래가불주. 지금 타는 네발오토바이는 단단하고 바퀴가 크난 바람 불어도 뭐 하든 안하고 흔들리지 아녀고 안전하고 눈 올때 그냥 지나가고 모랫판에도 확 카붙고 가는 거. 3백만원 쫘어. 웬만한 차 값이주. ⁶⁹⁾

[동석한 할머니를 향해] 그전에 (오토바이)중고 샀수다. 그전에 중고 하다가 죽어부난 또 그 중고 해어부난 타다가 올해 새것 샀수다. [필자를 향해] 170만원에 올해 새 거 샀어. 오토바이도 막 비싸. 몇 백만원 해. 차보다 비싸. 나 타는 것도 170만원 쫘어. 최하가 150만원이야. 여기 동남서는. 새 거. 내가 들어보니까.

고성리 툇툇이어멍은 십년 전 상시 물질은 그만두었지만 ‘소라허채’에는 참여해서 해녀의 지위는 이어오고 있다. 현재 임의로 식당에 다니는 그는 두 번의 중고오토바이를 거쳐 올해 새 오토바이를 장만했다. 반면에 고성, 신양리를

68) 신양리 상군해녀 김씨 남편 정씨 제보(57세 신양리 거주/ 2010.11.13 전화 인터뷰).

69) 신양리 상군해녀 김씨 제보(2010.11.14 전화인터뷰).

통틀어 ‘가장 잘 나가는’ 신양리 상군해녀 김씨는 2년전 3백만원이란 거금을 주고 네발오토바이를 구입했다. 그의 남편 정씨는 아내를 대신해 인터넷으로 오토바이를 검색한 후 아내에게 이를 보여주고 고성 동남에 가서 ‘힘이 좋아 밭에도 잘 가는’ 일명 네발오토바이(다이크)를 사왔다. 이 네발오토바이는 단단하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눈길이나 모랫벌도 잘 달린다고 한다. 김씨는 10년전 처음 오토바이를 샀을 때도 현금 160만원을 주고 새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고성·신양리 해녀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새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것은 썬치코지가 특히 바람이 세서 잔물 섞인 바닷바람에 중고 오토바이가 금방 ‘녹아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고성·신양리 대부분의 중군해녀들은 160~170만원짜리 세발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가는 그들이 상군해녀인지 아닌지,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고성리 잠수회장 장광자씨는 오토바이를 이야기할 때면 신양리 김씨의 네발오토바이를 꼭 언급한다. 김씨가 2년전 새 오토바이로 교체하면서 거금 3백만원을 들인 것은 네발오토바이가 더 안전하고 단단할 뿐 아니라 그녀의 물질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눈오는 날이든 모래밭이든 확 지나갈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오토바이는 그녀가 지금 ‘잘 나가는 상군해녀’이며 자기 노동활동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스스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해녀들이 경제적 주생산자로서 가정의 경제권을 주도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주목되었다.⁷⁰⁾ 1938~60년 사이에 제주도를 여덟 차례 답사한 미수다는 ‘일본의 경우 대체로 남자는 어업을 주체로 하고 부녀자는 농업노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제주도에서의 어업이란 남자가 주체가 되어 종사하는 어로가 아니라 捕貝採藻를 주로 하는 전용어업으로 부녀자가 대부분 이를 맡고 또 사실상 농업의 주체가 된다.’며 ‘한 집안의 경제의 지지력이 오

70) 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9; Ko, Changhoon, 『A New Look at Korean Gender Roles: Jeju Women Divers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Asian Women』 Vol.23 No.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연구소, 2007; 泉靖一 著, 홍성목 역, 앞의 책; 梶田一二 著, 홍성목 역,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 우당도서관, 2005.

직 부녀자의 두 어깨에 있다고 해도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⁷¹⁾ 그것은 한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1930년대 출가해녀들이 그들의 집 혹은 마을에 보낸 돈은 제주섬 전체 경제의 2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⁷²⁾ 이즈미 세이이치는 '섬의 한 잠녀에 의해 얻어지는 연간 총수입은 193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33만2천7백97원에 이르러 도민의 남자가 어업으로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³⁾ 일제 강점기 이후 해녀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데 예컨대 '현대화 국가기반조성기에는 마을의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가 하면 마을 안길 등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특히 학교건물 신축 등에 기금은 물론 노동력까지 제공하였다.⁷⁴⁾ 조혜정은 제주 용마에서 해녀가 실질적인 경제권을 행사해 남성 위주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지 않고, 남성을 지배하지도 않는 '비우세사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⁷⁵⁾ 고창훈은 이에 더 나아가 육지의 여성들이 유교적 부덕 관념에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것과 달리 제주의 해녀는 '집밖

71) 梶田一二 저, 홍성목 역, 위의 책, 2005, 108쪽.

72) Ko, Changhoon, 앞의 논문, 2007, 42쪽.

73) 泉靖一 저, 홍성목 역, 앞의 책, 1999, 180쪽.

74)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2005, 42쪽. 필자는 온평리 현계월 은퇴해녀에게서 1950년대 불에 탄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소위 학교바당(‘서근여’와 ‘애기죽은알’을 가리킨다)을 공동어장으로 정하고 거기서 나는 미역을 공동으로 채취해 돈을 모아 학교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2010.9.22 온평리 현계월 해녀 자택에서 면담.

75) 조혜정, 앞의 책. 물론 이것은 1976년 용마마을 현지조사한 결과 도출된 결론이다. 그는 10년 후 1986년 다시 용마마을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이미 남성 지배의 사회가 되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용마마을은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육지 문화가 마을내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서 남성 지배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근대/전통, 육지문화/섬문화 우열원리가 공적/사적 이분화로 되어 남녀 서열화의 근간을 이룬다. 이는 실질적 남성 지배쪽으로 제주 사회를 구조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자율성을 확보해왔던 제주 여성들은 국가의 강한 근대화 물결 속에서 그 자율성을 크게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공적 영역에의 대거 편입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333쪽). 그러나 조혜정 교수가 용마마을을 바라본 후 24년이 흐른 지금 필자가 바라본 제주 해안가 마을 사회는 여전히 여성이 경제활동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 그 동안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그가 말한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지배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에서 전문적인 자기 일을 수행하며 ‘자기의 생산물을 수출하고’ ‘해녀회 등 민회적 성격을 띤 공동체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21세기 바람직한 젠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⁷⁶⁾ 해녀들의 오토바이는 그녀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해녀인지를 외부에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그녀들의 경제권이 그녀들에게 있으며, 현재 그것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 라고 할 수 있다.

5. 오토바이와 여자어촌계장의 등장

현재 제주도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여성들을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표>는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해녀들도 상당수 있으며 또 중산간 지방에도 더러 오토바이를 타는 해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오토바이를 타는 해녀들의 수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없으나 고령의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음을 증명한다.⁷⁷⁾

<표 3> 제주도 여성의 연령별 원동기 면허 소지자

연령별	2004	2005	2007	2010
16~19	11	9	14	17
20~19	58	56	60	90
30~39	121	104	74	56
40~49	558	470	315	173
50~59	955	931	830	647
60~69	643	709	778	892

76) Ko, Changhoon, 앞의 글, 39쪽 <표> 참조.

77) 제주경찰청 교통과 박순덕 주임의 제보로 필자가 정리했다. 박주임은 고령의 여성의 경우 모두 해녀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산간 여성들도 있다고 하였으나 그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예로 성산읍 중산간 지역인 난산리와 신평리의 경우 면허소지자는 2명, 4명인 반면 해안마을인 오조리는 22명, 고성리는 32명, 신양리는 38명이다. 2003년 이전 자료는 전산화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70~79	46	76	151	328
80 이상	1	1	2	5
총계	2393	2356	2224	2208

위 <표>를 보면 60대 이상 제주 여성들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0대 이상은 대부분 해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들에게 오토바이는 기동성으로 일터로 가는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작업 후 물건을 실어나르는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바다에 물질 가는 일은 이제 자연양식장의 소라 허채 시 남편들의 ‘마중’을 제외하고는 오롯이 해녀의 주체적인 일이 되었다. 누구에게 간섭받거나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자기 노동을 보다 효율성 있게, 오토바이라는 남성적 이미지의 탈것을 자기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는 아침에 바다에 실어다 주고 만나절을 앉아 기다리던 남편들을 그의 일터로 이끌게 했다. 해녀들이 바다에 나갈 때 남편들은 발에 가거나 혹은 발을 빌려 소작을 하거나 남의 발에서 일품을 파는 식으로라도 자기들의 일터로 가야 했다. 그래서 그녀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작업 후 동료의 성계알까기를 도와주거나, 화장을 하며 스스로를 단장하기도 하고, 장을 보러가기도 하고, 수협이나 어촌계 회의를 보러 가는 일도 빠지지 않으며 병원 물리치료나 기타 불일들을 더 여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오토바이 타고 밭일도 다니고 다 해. 나는 오토바이로 막 오만것 다해. 장 보러도 가고. 이웃집 가고. 그건 다. 그거 자기 기둥이나 마찬가지로야. 생계를 책임지는 거나 마찬가지로야. 편리하니까 게. 그리구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그걸 타면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한화건설 육지 있잖애.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신양리에 제일 큰 수족관 짓고 있어. 거기 가서 직원들 밥 해줘. 직원들이랑 일하는 사람들. 오늘은 잔치라부네 안 거주만. 4시에 일어나. 일어나서 4시반에 출발해야 해. 씻고 해서 물밥이라도 먹고 가려면. 오토바이 있으니까 어디, 그 시간에 가지. 이게 생활 뭐라.⁷⁸⁾

그런데 최근 10여 년 전부터 성산 수협 산하 어촌계에는 여계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⁷⁹⁾ 현재 성산읍 시흥리·종달리·성산리·삼달리 어촌계장은 해녀 혹은 여성⁸⁰⁾이다. 또 표선면 신천리 어촌계장, 구좌읍 하도리 어촌계장도 해녀이다. 시흥리의 경우는 두 명의 해녀가 8년씩 연임을 했다. 현재 성산리 어촌계장의 경우는 3회, 곧 12년째 어촌계장을 맡고 있다. 이는 또한 내륙의 어촌계 계장들이 대부분 중년의 남자인 것과 대비된다.⁸¹⁾ 그러면 제주 해녀들은 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어촌계장에 도전하는 걸까. 이는 제주 해녀들이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해녀회라는 생업공동체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수시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단련되었기에,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일터를 관장하는 어촌계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해녀들의 공동체인 해녀회가 어촌계 하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어촌계장은 줄곧 남성들의 몫이었다는 점에서 ‘해녀회, 혹은 여성’이 공적으로는 남성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 기존 견해였다.⁸²⁾ 그러나 이제 해녀들은 어촌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어촌계장을 맡기도 한다. 그리고 어촌계장은 ‘문서 이전에 바다의 내력을 잘 알아야 하므로’ 바다를 모르는 남성보다는 ‘못 배웠어도 바다에 대한 내력을 잘 아는 해녀’가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범이어명이 40년 넘게 물질을 한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계속 썼

78) 뿔뿔이어명(67세, 고성리 거주) 현재복씨 집에서 면담(2010.10.22).

79) 필자는 기본적으로 해녀들의 지속적 노동행위로서의 물질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가져왔다고 본다.

80) ‘여성’은 해녀는 아닌, 여성 어촌계 조합원을 말한다.

81) 안미정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경상남도 구룡포, 충남 신진도, 강원도 주문진 지역 해녀들을 답사하며 어촌계장이 모두 중년의 남자들이었음을 확인한다. 안미정, 앞의 글, 2005, 249쪽 참조.

82) 현재 고성·신양 어촌계 평의원은 모두 7명인데 그중 여성이 5명이다. 고성리 해녀회장 정광자씨에 의하면 성산 수협이 작을 때는 평의원(과거 총대)이 수협 관내 13어촌계여성계원수에 비해 19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수협이 크고 어촌계원이 많아서 평의원이 43명이다. 여기에 이사 11명, 감사 2명까지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광자씨는 고성·신양 어촌계 대표라 평의원(총대)이 되었다.

어. 수협에 쓰든가 어촌계 해녀회장을 허든가 뭐 허든가 총대를 쓰든가 계속 해마다 쓰기 때문에 고성리에는 산 증인이야. --회의 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딱 알아. 다른 사람들은 별루게 알다시피 해녀들은 잘 배우지를 못하고 그래도 또 해녀에 대한 거는 잘 알거든. 그러니까 큰소리 뽕뽕 쳐. 아이구 큰소리 친다고 어촌계장도 잘 못허면 막 (바뀌요?)어 해녀회에서 바꿀 수도 있지. 그리고 잘 못하면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면서)계장한테도 막 뭐라 한다고. 이게 뭐 해녀에 대한 거로난. 이게 공구 이전에 문서 이전에 바다에 대한 내력을 알아야 허기 때문에. 계장님 뽑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계장은 범이어멍만 몰라.⁸³⁾

고성리 범이어멍, 현 잠수회장인 장광자씨는 3년전 고성·신양 어촌계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한달여 선거운동까지 하다가 막판에 신양리 현 어촌계장 김봉조씨에게 양보를 하며 기권을 했다. 그는 60대 중반인 초등학교 출신인 자기에 비해 김계장이 40대이고 많이 배웠으며 신양리 해녀수가 고성리 해녀수에 두 배 이상 되고 신양리에는 ‘배를 하는’ 어촌계원들이 있다는 점, 젊은 사람에 대한 해녀들의 기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기권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아직도 40년 넘게 물질을 해서 ‘바다의 내력’을 잘 아는 그에 대한 미련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해녀들은 젊고 능력 있다고 기대되는 남자 후보에게 양보하거나 밀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들, 특히 해녀들이 경선이란 치열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어촌계장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어장관리, 어장 분규, 오염, 허채와 금채 기간의 설정 등 대부분의 어촌계 사업이 자신들의 일터인 바다와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물질을 하는 주체인 해녀의 생각으로 남편들의 생각은 다르다. 아래 대화는 어촌계에 소속된 해녀와 소속되지 않은 남편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준다.

조사자: 어촌계 조합원이 해녀가 많은데 계장은 왜 남자들을 많이 뽑죠.

83) 뽕뽕이어멍 현재복씨 집에서 면담(2010.10.21).

남자삼춘: 배하는 사람들이 어촌계 있지. 남자가 해도 버쩐디 여자가 하면 누가 따라가 .

여자삼춘: 배가 있어서

남자삼춘: 어촌계장 여자 하면 해녀들이 말 안 들어.

여자삼춘: 시흥리는 배가 없지. 여자 계장 많아. 삼달리도 여자.

남자삼춘: 거기는 배가 별로 없어

남자삼춘: 어촌계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물질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구.

여자삼춘: 어촌계원이 투표해서 어촌계장을 뽑는 거야. 경쟁이 상당해. 선거로 나오니까.

조사자: 고성리 지금 해녀회장 하시는 그 삼춘은 어촌 계장으로 한번 나왔으면 하는 말을 어떤 분이 하시던데

남자삼춘: 개발 되어 가는데 젊은 사람 해가지고 남자 해가지고 뭐 좀 알아가지고 행정에도 알아가지고 사업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물질만 해가지고서는. 지금 사업 같은 거 잘 따와 지금 어촌 계장이 해녀의 집들도 신앙리 동곶 같은 데 해녀의 집도 다 신축해주고 또 뭐 이것저것 해녀체험어장 만든다 뭐다 해서 많이 신경을 써. 그런 사람이 해야지. 물질만 해서는.

조사자: 시흥하고 삼달리가 여자분이 어촌계장이죠. 성산리도 여자계장이고

여자삼춘: 어.

조사자: 그런 거 보면 해녀들도 어촌계장까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질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지실 것도 같은데.

여자삼춘: 모르겠지만 뭐. 우리 같은 세대는, 우리만 해도 꿈도 꺾을 만 하지.

위 대화에서 알 수 있듯 남자삼춘은 행정력 있고 사업력 있는 젊은 남자가 어촌계장의 적격이라 생각하지만 고성에서 가장 젊은 해녀인 여자삼춘은 여자 어촌계장이 많음을 이야기하며 자기 세대는 꿈 꺾을만 하다며 자신의 뜻을 비추었다.

그런데 여자어촌계장과 ‘오토바이’는 관련이 있을까.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토바이로 인해 해녀들이 상대적으로 자기 시

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 어촌계회의나 혹은 친목계 등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은 것은 분명하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일터인 탈의장에서 매일매일의 ‘회의’를 자연스럽게 하지만 마을회의나 게이트볼 대회, 노인회, 부녀회, 각종 친목계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친목을 도모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사회적 입지를 다졌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해녀들은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어촌계장을 뽑으려 하며 본인이 혹은 자신들 중에서 누군가를 어촌계장으로 추천하려 한다. 그들의 결속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지난 제주도지사 우근민의 당선은 전적으로 해녀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해녀들이 많았다.

그게 제주도에서 해녀증 만든거는 지금 우근민 지사 두 번째 했을 때. 그때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서 해녀들이 피곤하니까 해녀증 만들어 약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경해부난 제주도 해녀들이 오래헌 거는 인정하면서도 지금 우근민이를 해녀덜 만큼은 뒤에서 우리 해녀덜 만큼은 투표할 때만이라도 우리 아들딸보단 낫으니까(나으니까) 밀어주자 그랬던 거 같아. 병원도 가민 요즘 이 물리치료허는 거나 주사 봐 주는 거나 다 공짜니까 그 이상 어디 이시니. 그러니까 그런 인정으로 이번에도 된 거 같아. 이번이 네 번째. -- 개난 우리들도 그런 인정을 이치불지 안해진다.⁸⁴⁾

위에 나타나듯 해녀들은 자신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 우근민지사를 ‘미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녀들은 전 우근민지사가 제도화한 무료입욕권리와 진료비 및 물리치료 무료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제주도 해녀들은 ‘해녀의 아들’을 도지사로 밀기로 합의하면서, 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해녀 공동체의 힘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존재임을 인식했을 것이다.

84) 고성리 해녀회장 정광자씨 면담(고성리 광치기 해녀의 집. 2010.11.13).

조혜정(1988)은 앞의 책에서 양편비우세의 사회에서 근면하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물질 행위를 즐겁게 수행하던 해녀들이 가부장제적 자본주의를 겪으며 자주성, 공동체의식을 잃고 육지 지향적 콤플렉스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⁸⁵⁾ 그러나 최근 해녀어촌계장 혹은 여자어촌계장의 등장 및 도지사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해녀들의 정치력은 ‘해녀사회’가 엄연한 공동체이며 나름의 정치의식을 갖고 있음을 증거하는 게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물질’이란 자기들 특유의 몸 기술을 인정하며 전복 따는 것을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에⁸⁶⁾ 비유할 정도로 물질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해녀들, 물질은 ‘학벌에도 외모에도 구애받지 않고 빈부 차이도 없는 참 좋은 직업’이란 견해를⁸⁷⁾ 갖고 있는 해녀들과 그들의 노동이 있지 않을까 한다.

안미정(1997)⁸⁸⁾에 의하면 물질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들에게서는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산리 해녀어촌계장 고승환씨는 ‘가진 것 없이 못 배운 사람이 하던 천한 직업’이었다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예쁘게’ 차린 모습은 물질을 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행정에서도 해녀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녀였기에 아이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며 ‘물질은 학벌에도 구애받지 않고 외모에도 구애받지 않고 빈부 차이도 없이 참 좋은 직업’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 고성·신양리에서 가장 젊은 해녀인 순례(가명)씨는 8년이란 짧은 경

85) 이에 대해 권귀숙은 해녀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여성에게 덧씌워진 신화이며 남성 중심의 논리로 제주 여성을 더욱더 노동에만 몰입케 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권귀숙,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제,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 1996, 242쪽.

86) “물질도 이거 똑같은 물질이면 다하는 거 아냐. 서울대학교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상중하가 다 있어. 뭐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는 아무나 가나. 물질도 전복도 그게 아무나 따는 게 아냐. 물질을 내 해도 1년 내내 전복 하나 못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뭐 이상 일에 하나씩 따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 그게 물질이라고 (물질 어려워보여요) 어렵지. 어려운데 물 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얇은 데는 어렵지도 않은데 배우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 전복 따는 거는 아무 눈에나 보이지 않아. 시험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고성리 툇뜰이머 명 면담내용 중에서 발췌(2010.10.21. 현재복씨 집에서).

87) 성산리 어촌계장 고승환씨 전화인터뷰(2010.11.13).

88) 안미정,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력을 갖고 있지만 상군해녀로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해녀중의 하나가 되었다. 순례씨의 집은 고성 웃동네여서 바닷가까지 가려면 1시간이 족히 걸린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타고 바다로 출근한다. 그녀는 물질이 가장 자유로운 일이라고 말한다.

(삼촌이 생각할 때 물질이 밭일 하고 비교하면) 물질이 힘들긴 엄청 힘들지. 노동력으로 따지면. 근데 제일 자유로운 게 바닷물질이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했나봐. 바닷가에 갔다가도 밭에 갈일 있으면 밭에 가고, 밭에 갔더라도 바다에 가 구 싶은 시간에 가서 해도 되고 제일 자유로운 직업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자유로운 직업이다. 수입은 종잡을 수 없다. 평균 낼 수 없다. 대충 소라같은 거 할 때 계속 5, 6일 작업할 때는 한달에 오일만 해도 170, 180만원. 근데 못할 때는 더 안되고, 나는 작살로 고기 하나까. 이번 물끼 같은 때는(물건이 어서) 돈 하나도 못 하는 사람들 많았지. 나는 되더라구. 어제 젊은 언니 거기가 작살을 들고 다니거든. 나도 한번 들고 다녀봤지. 이제 전문가가 됐어. 요령은 고무줄 늘려가지고. 대나무하고 작살촉하고 고무줄만 있으면 되는 건데.(물고기도 움직이는데) 그게 물속에 들어가면 돼. 물질이 힘은 좀 드는 일이지만 자본이 제일 안 드는, 밭농사 하려면 자본 이셔야지 기계 빌려서 밭 갈아야지. 근데 우리 물질은 고무옷에 태왁에 오리발만 있으면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제일 편한 직업이니까.⁸⁹⁾

순례씨가 생각하는 ‘물질’이란 직업은 일종의 ‘프리랜서’와 같다. 물질은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며 일한 만큼 소득이 보장된다. 또 자본금이 들지 않는 일이다.

순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성·신양리 해녀들에게 오토바이가 빠르게 확산된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소라값의 상승, 반농반어의

89) 2010.10.24. 순례씨 자택에서 면담한 내용을 정리함.

생업 구조 속에서 기동성의 요구 등이 그 외적 조건이라면, 해녀들이 갖고 있는 ‘자유분방한 기질’은 그 내적 조건일 것이다.

해녀들은 이구동성으로 물에 들 때, 물 속에 있을 때의 ‘기분 좋음’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태아 때 양수 속에 있을 때의 편안함일지도 모르겠다. 집안일이나 밭일, 남편이나 시댁 등 인간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의 시간. 그것이 고되고 때론 위험한 노동의 시간이어도 그것으로 자기의 자식들을 키워내며 삶을 지탱할 수 있기에 위로는 충분하다. 인간적 삶의 속박을 풀어 내주는 물질이란 노동의 일면은 해녀들을 경제적 주체로 서게 하는 한편 그들에게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적 본성을 기질화한 혹은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접수’한 데에는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오토바이를 타며 자신의 일터인 바닷가로 ‘질주하며’ 느끼는 자유로움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토바이 타면 좋은 점은 이 느네 자동차 타는 것식으로게, 섭지 갈 때도 나 혼자 확 가고 제주도 말로 ‘확’ 빨리 싣고 와지는 거지⁹⁰⁾

그거 있으니까 짐 실으는 거구 뭐구. 그전에 소라 허채할 때는 같은 때는 이 오토바이가 없으면 남자가 싣거 오고 막 경운기로 싣거 오고 싣거 가고⁹¹⁾

1인용의 탈것으로 설계된 오토바이의 상징적 이미지중 하나인 ‘자유로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원하는 속도로 훌쩍 떠나며 달릴 때 느끼는 자유로움과 후련함은 자전거나 자동차가 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해녀에게서, 대부분은 ‘해녀할망들’에게서 오토바이와의 정서적 일체감 혹은 연대를 느낄 수 있다. 남편의 경운기에서 벗어나 나대로의 노동 현장으로 달려가는 즐거움. 탈 것과 주체가 소외되지 않음. 자기 노동과 그로부터 소외되지 않음.

90) 고성리 해녀회장 장광자씨 고성 앞바다 광치기 해녀의 집에서 면담(2010.10.22).

91) 뽕뽕이머뭇(67세, 고성리 거주) 현재복씨 집에서 면담(2010.10.22).

6. 땀땀말

1995년도 무렵 제주의 한 해안 마을 고성·신양리 해녀들은 오토바이에 도전했다. 몇몇 젊은 상군해녀들에게서 시작된 오토바이 타기는 곧 이 마을 전체 해녀들에게 퍼져나갔다. 신양리에서 제일 먼저 오토바이를 탄 ‘홀어머진 수어명’은 13곳이나 되는 밭농사와 물질을 동시에 해야 했으므로 오토바이를 착안, 혼자 몇 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며 일을 했다. 그를 필두로 몇몇 젊은 해녀들이 하나 둘 오토바이를 타다가 마을 해녀들이 모두 오토바이 타기에 도전한 것은 1995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던 소라값이 최고조에 이를 때였다. 그래서 대부분 오십이, 혹은 육칠십이 넘은 해녀들은 이 과감한 도전을 실행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남편들이 실어다 주는, 그래서 일면 불편했던 노동 과정의 한 측면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오토바이는 밭일과 물질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해녀들의 반농반어의 생업에 효율성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남편들을 그들의 일터로 가도록 함으로써 남성들의 생산적 노동을 이끌어 낸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해녀들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경제활동의 오롯한 주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오토바이는 해녀들의 표식이 되어, 그들이 물질을 하는지, 밭에 갔는지, 혹은 집에 있는지를 알려주며 그가 상군인지 하군인지,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준다.

오토바이가 고성·신양리 뿐 아니라 제주도 해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러한 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지만 오토바이가 주는 자유로움이란 정서적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해녀들이 모두 인정하듯 물질의 고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덕을 메고 40여 분을 땀 흘려 바다까지 걸어와 물에 들 때, 물 속에 있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음, 자유로움은 해녀들의 자유분방함을 기질화 혹은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질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인간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일면이 있다.

한편 1995년 당시 소라값이 올라 오토바이의 기동성이 요구되었던 그 무렵,

즉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며 바다로 출퇴근하던 그 즈음부터 해녀들의 감소 추세가 확연히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해녀들이 자신들의 노동 행위의 효율성을 위해 적극 끌어들이는 오토바이가 해녀 사회 전체를 활기 있게 이끌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토바이로 물질과 발일을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장보기·병원·각종 계모임·회의 등에 더 잘 참여하게 되었다. 오토바이는 물질 혹은 발일 후 녹초가 되어 걸어오던 그들에게 ‘발’이 되어주었기에 해녀들은 오토바이를 통해 사회적 활동의 반경을 넓힐 수 있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늘고 있는 여자 어촌계장의 등장에 오토바이가 간접적으로나마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해녀들의 생애구술을 들으면 물질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은 천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데에서 외모나 학벌, 빈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자유로운 직업이란 인식으로의 변화이다. 특히 상군 해녀의 기량은 서울대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만큼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은 물질 경험이 적든 많은 물질이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 일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도 탈의장이나 병원진료권 등 노동현장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엄연히 노동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동은 액수를 떠나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정직한’ 노동이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혹은 극소수지만 자가용을 타고 바다로 출근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일터가 바다의 오염,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해저 생물의 변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⁹²⁾ ‘오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어로집단’으로서 그리고 자기 노동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서 자원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만

92) 이기욱에 의하면 잠수업의 근거지인 공동어장은 전 연안에 걸쳐 모두 124개소에 총면적 15,543ha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극적인 자원증식을 위한 별다른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어획에만 전념해 옴으로써 남획에 의한 자원고갈이 심각하다. 특히 생활폐수, 농약, 양어장의 폐수, 전분 공장 등 각종 공장에서 방출되는 오수로 인한 어장오염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원감소현상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제주 농촌경제의 변화』, 집문당, 2003, 310쪽.

들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제주 해녀, 물질, 오토바이, 소라값, 경제주체, 여자어촌계장, 자유로움

■ 참고문헌

1. 저서 및 논문

- 고창석, 『조선 후기 제주지방 전담매매문기의 연구Ⅱ』, 『탐라문화』 제21호, 탐라문화연구소, 2001.
- 고창석, 『19세기 제주지방의 토지매매 실태』, 『탐라문화』 제22호, 탐라문화연구소, 2002.
- 권귀숙,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 1996.
-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_____, 『제주도 민요연구』 上·下, 민속원, 2001.
- 김진명, 『굴레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1993.
-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원편, 푸른사상, 2002.
-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역사민속학회, 2004.
- _____, 『제주해녀투쟁의 역사적 기억』, 『탐라문화』 30, 탐라문화연구소, 2001.
- 박현수 엮음, 『짚물, 단물 -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1』, 천하, 2005.
- 안미정,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논문, 1997.
- _____, 『제주해녀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한양대학교박사학위 논문, 2007.

- 오선화, 『죽변 지역 이주잠녀의 적응과정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원학희, 『제주 해녀어업의 전개』, 『지리학연구』 제10집, 1985.
- 이기욱, 『제주 농촌경제의 변화』, 집문당, 2003.
- 전경수, 『제주연구와 용어의 탈식민화』, 『제주언어민속논총』, 현용준 박사 화갑기념회, 1992.
- 전경수 엮음, 『사멸위기의 문화유산』, 민속원, 2010.
- 제주대학교 국어연구소, 『나 육십육년 물질허명 이제도록 살안』(2008), 『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 각, 2009.
-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2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난 살앗주』, 제주도, 2006.
- 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1999.
- 좌혜경, 『해녀노래 현장과 창자 생애의 사실 수용분석』, 『영주어문』 제7집, 2004.
- 좌혜경, 『해녀 생업 문화의 민속지식과 언어표현 고찰』, 『영주어문』 제15집, 2008.
- 좌혜경 외,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미』, 민속원, 2005.
- 주강현, 『관해기』, 웅진지식하우스, 2006.
- 진관훈,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각, 2004.
- 泉靖一 著, 홍성목 옮김, 『제주도』, 우당도서관, 1999.
- 하이다 하트만,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분업』, 『제3세계 여성노동』, 창작과 비평사, 1985.
- 榊田一二 著, 홍성목 옮김, 『제주도의 지리학적 연구』, 우당도서관, 2005.
- Ko, ChangHoon, 『A New Look at Korean Gender Roles: Jeju Women Divers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Asian Women』 23, Vol.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7.

Jeju woman divers and motorcycle

– Influence on their ordinary life and social position –

Min, Yoon-Suk

(Doctor's course,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we notice a lot of Jeju woman divers on the motorcycles on the way to work and hundreds of motorcycles are parked in a group near the change room of the woman divers especially when checking the trumpet shells. Thus the motorcycles near the seaside indicate if the woman divers are working or even their financial status. This paper inquired the motivation of Jeju divers utilizing the motorcycle in their ordinary life and its consequence to change their social position and lifestyl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Gosung and Sinyang-ri, Seongsan-eub Seogui-po-city, Jeju.

In semi-agrofisshery life structure, it takes about 1 hour to reach the village owned seaside for the woman divers of Gosung-ri on foot. The first introduction of motorcycle to woman divers coincided with the price advance of exporting trumpet shell to Japan in 1995. From two high-level divers with motorcycles, utilizing motorcycle as a mean of transportation spread quickly to woman divers community since the motorcycle enhance the efficiency, convenience and independence. Traditionary Jeju woman diver has had her own land or real properties on her name, if from her income. Thus having motorcycle render the woman divers less dependent to husbands for transportation such as motor tillers, and more efficient and independent for their own work. This may be retrospectively by the stationary rate of reduction of the number of Jeju woman divers when motorcycles were adopted in 1995 to 2000, compared to the sharp decrease since

1969. Adoption of motorcycle not only influenced their own work, harvesting in the sea, but their ordinary life such as farming, meeting, shopping, health checking and even other diverse social networking. Enhanced social position may reflect that several woman leaders have been elected in fishery communities which are surprisingly new in the traditionally communities in a recent decade. With the increase of income and social position, woman divers feel more pride on their job as freelancer job free from academic career, wealthiness, appearance, but with their own ability.

In conclusion, the adoption of motorcycle by woman divers not only influence their labor efficiency but also ordinary life and even the view of their occupation.

[Key Words]

Jeju woman diver, motorcycle, price of trumpet shell, independence, woman leader, freelancer, social position

논문투고일 : 2011년 2월 6일 / 논문수정일 : 2011년 3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3월 20일

к с і